

2020

ISSUE BRIEFING

연구진

박정민_사회문화연구부 부연구위원(전북학연구소)

권이선_사회문화연구부 전문연구원(전북학연구소)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 전라북도 - 청년 4·19의 시작 -

CONTENTS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2. 전라북도의 4·19혁명과 전북대 4·4의거	5
3. 전라북도의 대응	7

요약

- 정부는 4·19혁명 60주년을 맞이하여 2020년에 국가 차원의 대대적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외 4·19혁명 관련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대구(2·28), 대전(3·8), 마산(3·15) 등에서도 성대하게 60주년 행사 기획
- 전라북도는 동학부터 촛불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흐름 속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지역이지만 4·19혁명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음
- 4·19혁명 당시 전북대에서는 4월 4일에 전국의 대학 가운데 최초의 시위가 있었고, 핵심 주축은 4월 20일 시위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 따라서 전북대 4·4의거를 4·19혁명의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일련의 활동을 재조명하여 전라북도가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
- 4·19혁명 60주년을 맞이하는 전라북도의 대응 방향은 크게 네 가지. 첫째,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함
- 둘째, 4·19혁명 관련 대학 최초 시위인 전북대 4·4의거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도내·외의 관심을 환기할 필요
- 셋째,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전북대 4·4의거를 적극적으로 알려 전라북도가 4·19혁명 당시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리는 여러 사업을 추진
- 넷째, 동학에서 촛불까지 계승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흐름에서 차지하는 전라북도의 위상을 고려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민주주의 테마공원'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사업 추진
- 4·19혁명에서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위상을 밝혀 동학에서 촛불까지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전라북도라는 이미지를 확립하여 향후 전라북도의 정신·정체성 마련의 토대를 마련하고, 도민의 자존감 고양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2020년은 4·19혁명 60주년

- 2020년은 4·19혁명이 일어난 지 환갑(還甲)을 맞이하는 60주년. 정부는 국가 차원으로 60주년을 치루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
 - 2020년 1월 7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행사에서 진행한 신년사 발표에서 “올해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고 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¹⁾
 - 2018년 4월 19일, 당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19혁명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하고, 관련 행사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음²⁾
 - 현직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경우는 역대 3차례로 드문 사례
 - 2000년(40주년)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2007년 노무현 대통령, 2010년(50주년) 이명박 대통령 참석
- 4·19혁명은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주의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을 타도한 역사상 최초의 승리로 기억되며 국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
-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밝히며 4·19혁명의 의미 강조
- 4·19혁명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73년 3월에 ‘4·19의거기념일’을 기념일로 지정. 1994년에 ‘4·19혁명기념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의의가 격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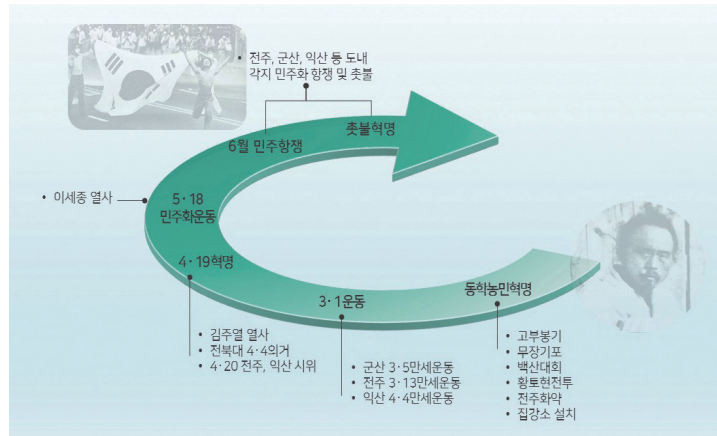
◎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전라북도

- 동학농민혁명(1894) → 3·1운동(1919) → 4·19혁명(1960) → 5·18민주화운동(1980) → 6월 민주항쟁(1987) → 촛불혁명(2016)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흐름에서 전라북도는 빠질 수 없는 지역
 -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고부봉기·무장기포·백산대화·황토현전투·전주화약·집강소 설치 등)
 - 3·1운동의 주요 거점(호남 최초의 3·1운동인 군산 3·5, 전주 3·13, 익산 4·4 등 각지에서 만세 운동)
 - 5·18민주화운동 : 최초의 희생자(전북대 이세종 열사 1980. 5. 17)
 - 6월민주항쟁과 촛불혁명 : 도내 각지에서 많은 학생과 시민의 참여

1) ‘대통령 신년사 발표…촛불정신 되새긴다’ 『머니투데이』 2020년 1월 7일

2) ‘문 대통령, 2020년 4·19 혁명 60주년 기념식 참석키로’ 『경향신문』 2018년 4월 19일

-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4·19혁명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부각되지 못함
 - 김주열 열사의 고향(남원)
 - 4월 20일 전주와 익산의 학생운동이 조명되는 정도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 위상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4·19혁명 당시의 활약상을 재조명할 필요



〈그림 1〉 전라북도의 민주주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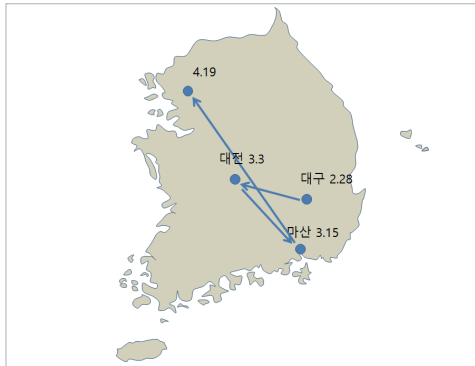
- 특히, 그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흐름에서 전라북도의 약한 고리였던 4·19혁명 관련 발자취를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주제
- 1960년 4월 4일 최초의 대학생 시위가 전북대에서 전개.³⁾ 지금까지 4·19혁명의 대학생시위는 1960년 4월 18일에 고려대를 필두로 이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전북대는 그보다 14일 앞서 최초의 대학생 시위가 일어남
- 전북대 4·4의거의 주역들이 4월 19일과 20일에 전주와 익산 등의 시위를 주도함. 이를 상기하면, 전북대 4·4의거는 전북지역 4·19혁명의 연속선상에 있음. 또한, 전국 대학교 가운데 최초의 시위라는 점에서 큰 의미
- 전북대 4·4의거가 재조명된다면 2·28민주운동(대구), 3·8의거(대전), 3·15의거(마산), 4·19혁명으로 인식되던 기존의 4·19혁명에 전라도 지역도 포함되며 전국적 민주주의 발생 이미지를 보일 수 있음
- 따라서 전북대 4·4의거를 4·19혁명 관련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일련의 활동들을 재조명하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
- 민주주의의 뿌리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이를 토대로 도민의 자존감 고취
 -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립한 뿌리가 전라북도임을 강조하여 현대적 의미 부여
 - 한국사에서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위상을 도내 및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

3) 유명철, 「2·28민주운동, 3·15 1차 마산의거와 4·11-13 2차 마산의거, 4·19 혁명: 그 '연관성'에 대한 내용 지도의 필요성」, 『사회과교육』 57-1, 2018, 43-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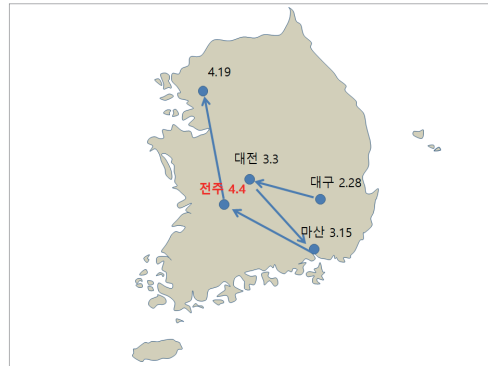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 전라북도 - 청년 4·19의 시작 -

• 나아가 세계 4대 민주혁명의 발상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최근 세계 3대 혁명으로 알려진 영국의 명예혁명(1688), 미국 독립혁명(1776), 프랑스혁명(1789)에 대한민국의 4·19혁명을 포함하자는 의견 제시
- 전라북도가 4·4의거로 4·19혁명으로의 연결고리를 채운다면, 그 연원인 동학농민혁명을 세계 4대 민주혁명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논리 가능



〈그림 2〉 기존의 4·19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지역



〈그림 3〉 4·4의거가 포함된 4·19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지역

2. 전라북도의 4·19혁명과 전북대 4·4의거

◎ 전개⁴⁾

- 1960년 4월 4일 전북대 개강일에 정치학과 3학년 전대열, 황춘택 등을 주축으로 이승만 독재와 3·15부정선거 규탄 데모
 - 민주선언문 작성 : 전북이 동학혁명의 발상지라는 사실과 3·1 만세사건과 6·10 만세운동 그리고 광주학생운동 등 선열들의 뒤를 이어 꺾기한다는 취지의 내용(현재 남아 있지 않음)
 - 700여 명의 학생들이 "자유당 독재정치 물러가라! 3·15 부정선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으나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경찰들이 교문을 봉쇄하고, 주동자 7~8명 연행
- 데모는 미수에 그쳤지만, 다음날 전북일보에 기사가 실리며 4·4의거의 전말을 유추할 수 있음

- "작 4일 상오 9시 30분경 시내 덕진동 전북대학교에서는 학년말 휴가를 마치고 등교한 학생들간에 학생데모가 행해지려다가 경찰의 사전 탐지로 좌절되었다. 이날 등교 학생들은 등교를 하고 등교 후정에 모여 강의시간이 시작되기 전 수분동안 서성대고 일부 학생들만이 '정치구호'를 외치며 또한 클럽 활동을 하였다고 하는데 한편 '데모'설을 재빨리 알아차린 경찰의 현장 출동으로 제지되었다고 한다."(『전북일보』 1960년 4월 5일 석간)

4) 전대열, 「전북대학교 4·4시위의 의미와 증언」, 『4월 학생혁명 50주년 기념 전북대학교 학술대회』, 2010 ; 신기현, 「전북대학교 4·4시위와 학생운동」, 『4월 학생혁명 50주년 기념 전북대학교 학술대회』, 2010 ; 이성호, 「전북의 4월 혁명」, 『지역에서의 4월혁명』, 선인, 2010 및 '4·19 정신 효시는 전북' "새전북신문" 2010-04-19의 내용 발췌.

- 4·19혁명의 분위기를 기록한 영문과 2학년 김소영의 <일기>를 통해 학생들도 전북대 4·4의 거가 최초의 '데모'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음

- 4월 4일

신학기가 되어서인지 남학우들만 나와 있고 여학우라곤 나와 H 그리고 등(藤)뿐이다. 오늘따라 학우들의 오가는 시선들이 심상치가 않다. 매일 교내엔 얼굴에서 개기름이 흐르는 형사들이 대여섯 명이나 붙어살면서 남학우들을 못살게 굴어서만도 아닌가 보다.

아침 아홉시 반 남학우가 쫓아와 중정(中庭)에 집합하고자 한다.

눈치를 살피는 품으로 보아 '무슨 일났고나!'하는 생각이 번듯 들었다.

중정엔 사백여 명의 학우들이 모여 있었다. 게시판엔 변동이 심한 시간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수업은 정상화하기 어려운 모양 같다.

무심히 바라다본 이 정경에 낯선 얼굴들이 종종이 섞여있다. 분명히 경찰이다. 학원도 자유로히 출입할 수 있는 특수계급들이다. 주위도 정복을 입고 총을 가진 경찰이 짝차있다.

전북대생의 첫 '데모'를 막기 위해서다. 정의앞에 난무하는 힘과힘 권력과 권력...

교수들은 '진정하라'고 하는덴 기성다웠지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게 하는 우리의 돌레를 이해 못하나 보다. 『전북대신문 77호 4면』 1960년 5월 13일)

• 4·4시위 참여 학생들의 4·19시위 주도

- 4월 20일 오전 11시쯤 전북대 법정대생을 중심으로 약 600~700명 가량이 전주 시내로 진출
- 전대열, 이현기 등은 전주 시내 각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감하여 신흥고, 상업고, 공업고, 전주고, 전주사범 등의 참여를 이끌어 냄. 전북대생과 각 고등학생, 일반시민이 합류하여 도청 광장까지 행진
- 전주 시내 오거리에 모여 구호를 외치면서 도청 광장까지 행진
-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연일 데모를 감행
- 4월 20일에 이리(익산)의 전북대 공과대학과 농과대학, 원광대학교 및 중앙대 이리캠퍼스 대학생들이 데모. 여기에서도 이리여고, 이리여상, 원광여상, 남성고, 남성여고, 이리상고 등의 학생이 몰려나 옴

◎ 최초의 대학 시위 인정 기록⁵⁾

- 현재 전북대 4·4의거가 최초의 대학 시위였다는 점은 알려지지 않음. 하지만 여러 단체와 대학의 기록에서 관련 사실을 찾을 수 있음
 - 4월민주혁명사 : 4월 4일 전북대생 3백여 명이 대학생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데모를 하였다고 기술(『4월민주혁명사』, 제3세대, 1992, 178쪽)
 - 호남 4·19삼십년사 : 4월 4일 전북대생 3백여 명이 전주 시내를 누비며 이승만의 실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기술(『호남 4·19삼십년사』, 삼화문화사, 1995, 157쪽)

5) 신기현, 「전북대학교 4·4시위와 학생운동」, 『4월 학생혁명 50주년 기념 전북대학교 학술대회』, 2010 참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 전라북도 - 청년 4·19의 시작 -

- 동국대학교 4·19 혁명사 : 4월 4일 전주, 전북대생 3백명이 대학생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데모를 하였다고 기술(『동국대학교 4·19 혁명사』, 클로바, 2003, 329쪽)

• 전북대학교 자체 신문 및 교사, 전북 지역의 언론 기사 등

- 전북대학교60년사 : “4·19학생 데모의 효시와 전북대학교”

당시 본교 학생들이 서울의 학생들처럼 치밀한 계획을 세워 대대적으로 활동하지 못하였어도 4·19혁명의 효시가 되는 전북대생의 데모는 고려대학교의 4·18학생데모보다 14일 앞선 4월 4일에 전대열(정치,3)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나 곧바로 진압되었다.(『전북대학교60년사』, 전북대학교, 2007, 131~132쪽)

◎ 4·4의거 관련 사업 현황

• 전북대 4·4의거가 최초의 대학 시위였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음. 물론 여러 방면으로 선양 사업을 하고 있지만 파급효과가 크지 않음

- 일괄적이고 연속적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발성에 그치고 있음

- 전북대학교 자체 혹은 매년 4월에 지역 신문에서 관심을 갖는 정도에 그쳐 지자체나 중앙정부 등과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음

〈표 1〉 4·4의거 관련 사업 현황

구분	일시	내용	비고
기념 및 선포식	'95. 4. 4	전북대 이세종광장에서 장명수 총장 등 교직원과 재학생이 참여하여 '4월 혁명의 효시 전북대 4·4시위 기념 및 선포식'	
학술대회	'10. 4. 5	4·4의거 50주년을 맞이하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관으로 "4월 학생혁명 50주년 기념 전북대학교 학술대회: 4·4시위와 4·19혁명" 개최	
유공자 선정		전대열(건국포장), 황춘택(건국포장)	
오픈아카이브	2010년 경	구술아카이브 - 4·19혁명 - 전북 항목에 2010년경에 채록한 전대열, 황춘택의 구술 영상이 있음	
신문기사	4·19특집(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9혁명 효시 전북대 '4·4시위'-전북일보(2002-04-03) '민주주의 횃불' 4·19혁명 참여, 잊혀져가는 도내 생존 유공자들-전북도 민일보(2011-04-18) 	

3. 전라북도의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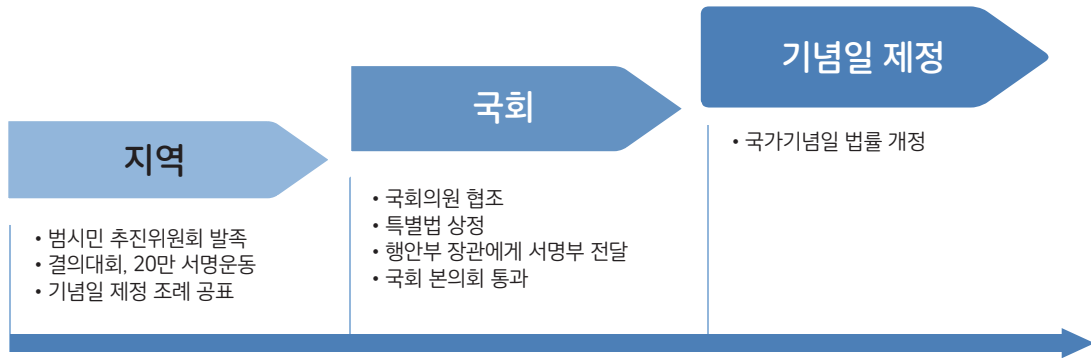
◎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법률 제정

• 국가기념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날로, 해당 사건의 품격을 높여주는 공식적 행사

• 2018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대구(2·28)와 대전(3·8)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북대 4·4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 결론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함

- 사업의 상징성, 관련 단체 등의 협력을 고려할 때, 처음 시위를 주도했던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혹은 사회과학연구소 등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
- 총선 공약으로 전북대 4·4의거의 국가기념일 제정을 포함하여 21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기념일 제정 로드맵



◎ 4·19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현황

- 2010년에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마산의 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 이후 각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 대구는 최초의 민주운동, 대전은 3·15의거와 4·19혁명을 촉발시켰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기념일로 추진하여 각각 2018년 2월과 11월에 제정
- 이외 각 지자체는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난 날짜와 연계하여 국가기념일, 시기념일, 관련 행사 등을 진행
 - 광주는 광주의 3·15의거가 마산보다 3시간 앞서 봉기가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여 4·19혁명의 첫 진원지라며 재조명 천명(매년 3·15의거 기념포럼)
 - 창원은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오른 4·11이 4월 혁명의 시작일이라며 창원시 기념일 추진 중
 - 서울 강북구는 각종 관련 행사 진행과 함께 4·19사거리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

〈표 2〉 4·19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구분	지역	내용	제정일
2·28민주운동 기념일	대구	'60. 2. 28. 대구 학생들과 시민들이 시위 전개	'18. 2. 6
3·8민주의거 기념일	대전	'60. 3. 8. 대전고 학생 1천 여 명이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 및 정·부통령 선거를 규탄하고 학원자유 쟁취를 위해 시위 전개	'18. 11. 2
3·15의거 기념일	마산	'60. 3. 15.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시위 감행	'10. 3. 12
4·19 혁명 기념일	전국	'60. 4. 19.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 이승만 대통령 하야	'73. 3. 30

※ 국가보훈처 주관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 전라북도 - 청년 4·19의 시작 -

- 국가기념일 제도 운용은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소속 의정담당관실에서 관장. 전북대 4·4의거를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각 소관 개별법에 의해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쳐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공포

◎ 전북대 4·4의거 60주년 기념식 개최

- 60주년 기념식과 연계한 성대한 행사의 진행으로 분위기 고취 및 도내·외 관심 환기
 - 전라북도가 후원하고, 전북대 정치외교학과가 주체가 되어 '60주년 기념 포럼'을 기획하여 학술적으로 전북대 4·4의거를 재조명
 - 전북대 박물관 교사자료실에 6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 개최
 - 당일엔 맞추어 도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60주년 기념식 개최(상징성을 고려하여 전북대에서 개최)
 - 4·4 의거 재현 행사 등을 통한 민주정신의 의미 계승과 시민 참여를 통한 홍보 효과 제고
- 도내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 국회, 도교육청, 전북동부보훈지청, 4·19혁명 참여 학교(신흥고, 전주상고, 전주공고, 전주고, 전주교대)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향후 범시민 추진위원회 등의 발족을 통한 민간차원의 추진, 전라북도 등의 후원
- 단발성 60주년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민·관·학의 협력으로 매년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분위기 제고
- 자라나는 세대인 초중고생 등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와 연계해 '학생토론대회', '학생글짓기대회'를 개최. 전라북도 도지사상, 전북대학교 총장상 등의 수여를 통하여 참여를 향상

◎ 홍보 사업

- 전라북도와 전북대, 교육청과 언론 등 유관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전북대 4·4의거가 최초의 대학 시위였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하여 4·19혁명 당시 전라북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었음을 홍보하는 여러 사업 추진
 - 유명인사를 초청한 강연과 방송을 기획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예 : 도올 김용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역사 강사 최태성 등)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도민강좌, 전주학·익산학 등 시민강좌에서 하나의 주제로 4·19혁명 당시 전라북도의 위상을 소개
 - 지역 방송 및 신문의 탐사 보도, 기획 다큐멘터리 제작 등으로 여론 환기
 - 관련 내용을 주제로 연극·뮤지컬 등을 공모하여 향후 4·4의거 기념일 등에서 공연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불의에 저항하는 전북인과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여 한국의 역사에서 전라북도의 역

활을 부각하는 강좌 마련

- 임진왜란기 웅치와 이치 전투, 한말 의병, 독립운동 등 불의에 저항한 전북인의 정신을 현대까지 계승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한발 더 나아가 올바른과 정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현하여 전라북도의 정신·정체성 마련
- 국회에서 ‘전북대 4·4의거’ 정책 토론 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분위기 환기
 - 2019년 10월 29일에 국회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마산합포)의 주재로 ‘3·15의거는 혁명이었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 이주영 의원은 2019년 6월에 국회에서 ‘3·15의거 명예회복·보상법’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재조명 사업 추진

◎ 민주주의 테마 공원 설립

- 동학에서 촛불혁명까지 계승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흐름에서 차지하는 전라북도의 위상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테마공원’ 설립의 근거 마련 가능
- 1998년 10월 26일에 확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계획은 2010년에 미완료 사업으로 종료되었으나, 전라북도가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아젠다를 선점하여 ‘민주주의 테마공원’사업 추진
 - 이미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 및 콘텐츠 추가
 - 공원은 동학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계승한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조성. 추가 국비 확보 등 신청 필요
- 비슷한 예로, 전라남도도는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추진 중
 - 사업기간 : 2019~2022년(4개년)
 - 추정규모 : 부지 330,000m²(약 10만평), 연면적 16,500m²(약 5천평)
 - 사업내용 : 역사공원 조성(테마정원, 체험 및 교육시설), 기념관, 상징조형물 등

<참고문헌>

- 『머니투데이』 2020년 1월 7일
『경향신문』 2018년 4월 19일
『전북일보』 1960년 4월 5일 석간
『전북대신문』 77호, 1960년 5월 13일 4면
육일회, 『4월민주혁명사』, 제3세대, 1992
4·19혁명부상자회 광주·전라지부, 『호남 4·19삼십년사』, 삼화문화사, 1995
동국대학교 4·19혁명동지회, 『동국대학교 4·19혁명사』, 클로바, 2003
전북대학교60년사편찬위원회, 『전북대학교60년사』, 전북대학교, 2007
전대열, 「전북대학교 4·4시위의 의미와 증언」, 『4월 학생혁명 50주년 기념 전북대학교 학술대회』, 2010
신기현, 「전북대학교 4·4시위와 학생운동」, 『4월 학생혁명 50주년 기념 전북대학교 학술대회』, 2010
이성호, 「전북의 4월 혁명」, 『지역에서의 4월혁명』, 선인, 2010
전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전북민주화운동사』, 선인, 2012
유명철, 「2·28민주운동, 3·15 1차 마산의거와 4·11-13 2차 마산의거, 4·19 혁명 : 그 '연관성'에 대한 내용 지도의 필요성」, 『사회과교육』 57-1, 2018
장세길, 「국가기념일 제정과 국가기념식 개최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방향」, 『이슈브리핑』 195, 전북연구원, 2019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
www.jthink.kr

ISSUE BRIEFING
2020. 02. 03 Vol. 215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주팔각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 김선기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